

‘학교비정규노조 내일 총파업’...광주·전남, 빵·우유 대체급식

학생들 학습권 침해 최소화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안내
 직원들 업무 재조정 통해 학업 지원·타 기관 연계 방안 고려

광주와 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가 31일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초·중·고 학교급식, 돌봄, 특수교육 차질이 예상된다. 광주·전남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학교 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빵·우유·도시락 지참 등을 안내했다.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31일 총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급식·돌봄 등의 대책을 마련해 초·중·고·특수학교 등에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광주지역 교육공무직 직원은 급식종사

자, 돌봄교사, 방과후 교사 등 4300명이다. 전남은 89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교육공무직 직원 대부분이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31일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통해 ‘임금체계 단일화’ ‘임금인상’ ‘복리후생 차별금지’ 구호 등을 외친다.

시·도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학교 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급식은 학교 사정에 따라 빵·우유·도시락지참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

돌봄교실·특수교육을 포함해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는 사전에 학부모·학생에게 안내하고 교장·교감 등이 대체교사로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 재조정을 통해 특수학생 학업을 지원하고 내부인력이 부족할 경우 타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교육부·시도교육청과의 입장 차이가 커 31일 총파업 강행

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당시에는 광주 조합원 4303명 중 901명(20.9%)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254개교 중 122개교가 빵·우유·도시락·학사일정 조정 방식으로 파업에 대응했다.

전남은 급식운영학교 877개교 중 134개교가 학사 일정 차질을 빚었다. 김재환기자



상춘객 반기는 담양군 용마루길 벚꽃

전남 담양군 추월산과 용마루길 입구에 활짝 핀 벚꽃을 보며 방문객들이 봄 경치를 만끽하고 있다. 담양호와 추월산과 용마루길, 가마골생태공원까지를 잇는 도로변에도 벚꽃이 만개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가뭄’ 광주·전남 용수 공급 차질 없게 환경부 “지금보다 극단적 상황도 대비”

광주·전남 지역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책으로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2~26일 영산강·섬진강 댐 유역에 30mm의 비가 내렸지만 지속적인 용수공급 등으로 비가 내리기 전과 비교해 주요 댐 저수율 변동은 크지 않은 상태다. 지난 27일 기준 저수율은 ▲주암댐 21% ▲수어댐 66.1% ▲섬진강댐 19.2% ▲평림댐 30.2% ▲동북댐 19% 등이다.

최근 2개월간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강수량은 2월 19mm, 3월 41mm로 예년에 비해 각각 52%, 69%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이들 댐의 경우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까지 댐에서 정상적으로 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한계수위인 저수위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초 저수위 도달 시기가 4~5월로 예상됐었는데, 섬진강댐을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섬진강댐의 경우에도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약 4700만에 이르는 농업용수 대체공급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경우 7월 중순으로 저수위 도달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전망은 200년 빈도 가뭄 상황을 가정했을 때 나온 결과다.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가뭄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도 홍수기 전까지는 주요 댐들이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범정부 차원의 가뭄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11월 가뭄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암댐·수어댐·섬진강댐·평림댐 용수 비축과 타용도 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해 지난해 7월부터 광주·전남 생활용수 124일분인 총 1억1900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하천수 취수 등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동북댐 수위 급감에 따라 영산강 하천수를 광주 용연정수장에 공급하는 비상도수관로를 설치, 고도처리를 한 후 지난 2일부터 하루 3만톤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가압장 설치가 완료되면 5월부터는 하루 공급량이 5만까지 확대될 수 있다.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광역 수도요금을 감면해 절수를 유도하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기업의 공장정비시기를 조정 등도 진행했다. 지역적 여건으로 제한급수 중인 섬(도) 지역에는 병입수돗물 70만병을 공급했다. 지하수저류댐, 해수담수화 선박도 역할을 했다.

환경부는 극단적인 강수량 감소가 이어질 경우 지속될 경우 댐 저수위 도달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비상상황에 대비해 저수위에 아래 비상·사수 용량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이슬기자

‘군대 문화 vs 학교 전통’...광주 일부고교 거수경례

광주지역 일부 고교에서 입학식 등 단체 행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의 A고교와 B고교는 학교 단체 행사가 있을 때 전체 학생이 강당과 운동장에 모여 교장 등에게 거수경례로 인사한다.

A고교와 B고교는 각각 학교의 ‘명칭’ 교훈을 상징하는 ‘단어’를 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교들은 입학식과 졸업식, 개교기념식 등에서 전체 학생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학생들이 도열한 후 거수경례를 하는 관습은 일제 식민시대의 잔재가 군사문화와 결합한 형태이다”며 “공통된 구호를 외치며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훈련은 군대에 어울리며 다양성, 상호성을 가르치는 교육의 생태와 맞지 않은 만큼 거수경례 관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A학교 교감은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식 행사에 참석하는 동문들과 공동으로

하는 퍼포먼스이다”며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기억과 자부심, 유대감을 심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B고교 교장은 “학교의 교훈을 학생에게 강조하기 위해 거수경례를 1회때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군대 문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한 교사에게는 장난스럽게 거수경례를 할 정도로 학교에 대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다”며 “학생회 등에서도 이의제기가 없어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동취재본부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봄꽃과 함께 떠나는 **2023 화순 고인돌축제** 2023.4.21.~4.30.
 화순고인돌유적지

화순군

화순 고인돌 EDM 페스티벌 *line up*

🕒 4. 29. 토 18:00~

📍 화순 세계거석테마파크